

06 학 력 평 가 와 모 의 평 가

내신과 모의고사가 다를 때

수시냐 정시냐의 실제 판단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그래서 어디로	3
03	언제 정하나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내신과 모의고사가 무엇을 다르게 재는가
- ◆ 어느 문이 맞는가 — 교과·학종·논술·정시를 나눈 표
- ◆ 언제 정하나 — 3월에 정하지 말고 6월에 무게를 잡습니다
- ◆ 9월 성적으로 여섯 장 나누기 · 최저는 두 개 영역인 자리가 가장 많습니다

01 · 먼저 사실부터

둘이 다른 것이 보통입니다

내신은 좋은데 모의고사가 안 나오거나, 그 반대인 아이가 많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재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신	모의고사
견주는 사람	같은 학교 학생	전국
범위	한 학기 정해진 범위	누적 — 넓습니다
준비 기간	몇 주	3년
무엇이 통하나	성실함과 반복	이해와 응용

넷째 줄이 이 차이의 뿌리입니다. 범위가 좁고 기간이 짧으면 반복이 통합니다. 범위가 넓고 기간이 길면 반복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신형」 과 「모의고사형」 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둘 다 실력이고, 다만 다른 실력입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및 평가원 시행 안내(2026년 8월 기준). 유형 구분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온 것이며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02 · 그래서 어디로

전형이 나뉘어 있습니다

다행히 제도가 둘을 갈라 두었습니다. 내신을 보는 문과 시험으로 뽑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이 문이 맞습니다
내신이 좋다	학생부교과 · 학생부종합
모의고사가 좋다	정시 · 논술
둘 다 좋다	다 됩니다 — 최저 있는 자리가 유리합니다
둘 다 아쉽다	최저 없는 자리를 찾습니다

맨 아랫줄에 길이 있습니다. 저희가 2027 수시 요강 6,482줄을 쉰 바로는 수능최저가 걸린 줄이 2,971줄로 46%였습니다.

뒤집으면 절반이 넘는 자리에 최저가 없습니다. 모의고사가 안 나와도 쓸 수 있는 자리가 그만큼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 줄의 뜻

둘 다 되는 아이가 가장 유리한 까닭은 최저가 걸린 자리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가 있는 자리는 경쟁자가 줄어듭니다 — 최저를 못 맞춰 떨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대학·학과라도 최저 있는 전형이 합격선이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6,482줄 집계. 합격선 경향에 대한 부분은 구조에서 짐작한 저희 판단입니다.

03 · 언제 정하나

6월과 9월

「수시냐 정시냐」를 언제 정할 것인가가 실제 물음입니다.

시기	무엇을 알 수 있나	정할 것
3월	거의 없습니다	정하지 마십시오
6월	졸업생이 들어온 첫 성적	무게를 잡습니다
9월	원서 직전 마지막	여섯 장을 나눕니다

6월에 「잡는다」는 것은 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쪽에 시간을 더 쓸지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둘 다 하게 됩니다. 수시 원서를 내고도 수능을 보고, 최저가 걸려 있으면 수능이 필요합니다.

내신이 이미 정해진 경우

고3 1학기가 끝나면 내신은 사실상 정해집니다. 더 올릴 학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3 여름부터는 수능 쪽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시로 툰다」는 뜻은 아닙니다 — 수시 최저를 맞추는 데도 수능이 필요합니다.

정시 쪽 숫자를 함께 보시면, 2026학년도 정시는 42,919명 모집에 충원을 중앙값 42%였습니다. 수시(67,153명)보다 자리가 적습니다.

출처: 2026학년도 정시·수시 모집인원 및 전형결과 집계. 충원 0명인 줄을 빼면 중앙값이 42%→69%로 부푼다. 0은 falsy 라 실수하기 쉽다.

04 · 그래서 무엇을

여섯 장을 나누는 법

9월 뒤에 하실 일은 여섯 장을 나누는 것입니다.

9월 성적이	여섯 장 배분
최저를 넉넉히 넘겼다	최저 있는 자리를 많이 — 경쟁이 덜합니다
아슬아슬하다	쉬웁니다 — 최저 없는 자리를 두세 장
못 맞춘다	최저 없는 자리 위주로

참고로 최저 문장의 생김새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센 바로는 「**몇 개 영역 등급 합**」 끝이 **2,751**줄로 대부분이고, **영역을 두 개 보는 자리가 1,844**줄로 가장 많았습니다.

두 개 영역이면 잘하는 과목 둘로 맞출 수 있습니다. 전 과목을 다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수시·정시를 나눌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내신과 모의고사 중 어느 쪽이 나은지 아는가
- ☐ 3월 성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가
- ☐ **6월 모평** 을 보고 무게를 잡았는가
- ☐ 지원할 자리의 **최저 조건** 을 적어 두었는가
- ☐ 최저가 **몇 개 영역** 인지 봤는가
- ☐ **최저 없는 자리** 를 몇 장 넣을지 정했는가
- ☐ 수시를 써도 **수능은 봐야 한다** 는 것을 아는가
- ☐ 정시 자리가 **수시보다 적다** 는 것을 아는가

일곱째를 짚어 두겠습니다. 수시에 붙어도 최저를 못 맞추면 떨어집니다. 수시를 쓴다고 수능을 놓으면 안 됩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우리 아이는 내신형이라 정시는 안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고3 여름까지는 그 말이 이르다고 봅니다. 내신은 3년에 걸쳐 쌓인 것이라 바꾸기 어렵지만, 수능 성적은 마지막 반년에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반대도 있습니다 — 안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6월과 9월을 보고 정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05 · 자주 묻는 것

수시와 정시 판단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내신이 나쁩니다. 수시는 접어야 하나요?

접지 마십시오. 수시가 내신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부교과는 내신이 중심이 맞습니다. 그런데 학생부종합은 학생부 전체를 읽고, 논술은 시험으로 뽑습니다.

저희가 입결을 쉰 바로는 같은 학과에서 학종의 합격선이 교과보다 낮은 경우가 87%였습니다. 내신이 아쉬우면 학종 쪽에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학종은 학생부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내신이 아쉬운데 학생부도 비어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신이 나쁘다」가 아니라 「학생부에 무엇이 있나」를 보십시오. 그건 L 시리즈에서 다뤘습니다.

Q. 둘 다 아쉬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가장 답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갈 수 있는 곳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드셔도 출발점입니다.

그다음에 남은 기간에 어느 쪽이 더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신은 남은 학기가 있어야 움직이고, 수능은 남은 달이 있으면 움직일 여지가 있습니다.

고2라면 둘 다 시간이 있습니다. 고3 여름이라면 수능 쪽이 유일하게 남은 변수입니다.

그리고 최저 없는 자리를 찾아 두십시오. 요강 6,482줄 가운데 절반이 넘는 자리에 최저가 없습니다. 거기서 여섯 장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내신과 모의고사가 다른 것은 재는 것이 달라서입니다. 3월에 정하지 마시고, 6월에 무게를 잡고, 9월에 여섯 장을 나누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요강·입결 집계와 시행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학과 합격선은 실지 않습니다.